

Japan Weekly Digest

2011. 12. 31. ~ 2012. 1. 6

☐ 금주의 이슈

- 교섭중인 FTA 모두 체결되면, GDP효과 33조~35조엔

☐ 일본기업전략

- 한·중·일 CEO, 환율·FTA·M&A에 대해 인식 차이
- 파나소닉전공·산요 통합, 新파나소닉 탄생

☐ 경제산업성 동향

- 에다노 경산대신, 일본경제신문 인터뷰 내용

☐ 보고서 리뷰

- 「포스트 잃어버린 20년」에 빛, 일본경제신문, 1월4일



대한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교섭중인 FTA 모두 체결될 경우, GDP증대효과 33조~35조엔

- 일본 TPP교섭 참가와 병행하여 한국, 중국, EU, 캐나다 등과 개별 교섭 시작. 일본 무역의 80%를 점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TPP는 미국, 호주 등 9개국과 교섭 중. 작년 11월 교섭참가 방침을 표명한 일본은 1월부터 미국과 사전협의를 본격화, 금년 여름에 교섭참가 여부를 결정
- 일본의 TPP참가 선언이 자극제가 되어 교섭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EU 등도 개별 교섭에 전향적임
 - 한·중·일은 작년 12월 공동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달 중에 FTA의 전제가 되는 한·중·일 투자협정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며, 올 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교섭개시를 결정
 - EU와도 경제연대협정(EPA)교섭 합의를 위한 정상회담이 상반기에 예정
 - 캐나다와 EPA교섭은 1월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이르면 봄에 교섭개시에 합의
- TPP외에 모든 교섭이 타결될 경우, 일본의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FTA체결 국과의 무역비중은 36.5%(교섭중인 것 포함)에서 83.9%로 확대. 무역대국인 중국(20.5%), 미국(13%), EU(11.6%)와의 교섭 향방이 관건
 - 일본정부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미국, EU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임. 한국은 교섭중인 것을 포함, 무역액의 6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 수출확대전락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는 경우 그 비율이 82%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임
- 노무라증권의 연구원에 의하면 TPP, 한·중·일FTA, 일·EU FTA 등 3개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10년 후 일본의 실질 GDP는 1.55% 증가. 실제로는 이들 3개 협정이 상호 마이너스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순경제적 효과는 1.3~1.4%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이것은 관세철폐에 따른 직접적인 무역증대효과만을 포함한 것이며, 체결 후 10년간 누적 GDP증대효과는 33조~35조엔 정도로 보고 있음

◆ 일본기업전략

□ 한·중·일 경영자들은 환율·FTA·M&A에 대해 큰 인식 차이

- 일본경제신문이 한국, 중국의 유력지와 공동으로 실시한 「한·중·일 경영자 조사」에 의하면, 환율이나 FTA에 대한 의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중국의 경영자들이 경영확대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
- 환율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본은 76%, 한국은 54%로 나타난 반면, 중국에서는 매우 고평가 되어있다고 보는 견해가 53%로 대조적
-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는 일본 경영자는 77%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에서도 60%이상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2012년말 각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전망에 대해서는 위안화는 약간 상승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3국 모두 가장 많음.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기업들은 약간 엔저로 추이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한국은 거의 보합, 중국은 약간 엔고로 추이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음
- FTA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TPP와 한·중·일FTA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영자가 46%로 가장 많음. 이어 중국은 42.2%, 한국은 44.4%의 경영자가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나, 한국과 중국의 경영자들은 TPP에 낮은 관심이 보임
- M&A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영자는 46.6%가 적극적인 자세. 이와 비교하여 일본은 엔고를 배경으로 50%이상이 M&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M&A를 기획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30%로 조사

□ 파나소닉전공·산요 사업통합, 신 파나소닉 탄생

- 파나소닉이 완전자회사인 파나소닉전공을 흡수합병, 산요전기를 포함한 3개사의 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체제를 발족. 가전에서 환경·에너지로 경영의 축을 변신하여 아시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 파나소닉은 이번 통합으로 16개 분야의 사업영역을 가전사업과 시스템제안 등 솔루션 사업, 디바이스 사업이 균형을 이루는 9개 분야로 구도를 재편
- TV사업은 적자 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박형TV용 패널생산 축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파나소닉전공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사업 및 산요전기의 에너지사업을 축으로 새로운 성장궤도를 목표

◆ 경제산업성 동향

□ 에다노 경산대신 일본경제신문사와 인터뷰 내용

○ 일본경제 및 산업정책 관련

- 무역수지 악화, 고령화에 따른 저축율 저하 등으로 2010년대 후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내수, 해외수요 개발을 위한 산업육성책으로 대응
- 성장전략에 맞추어 소비세 증세를 통한 건전한 재정이야말로 정치의 책임

○ 신산업 창출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 육아, 의료·간병, 에너지절약 등 3개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 저출산·고령화와 에너지절약 등 일본경제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산업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잠재수요를 개발
- 에다노 경산대신은 미래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격형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과제대응형사업 촉진법안을 제출할 뜻을 비침
- 새로운 산업은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연대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유지 서비스, 도시지역의 24시간 보육서비스 등을 상정. 간병 로봇 개발 등 제조업도 대상에 포함. 에너지절약분야에서는 스마트미터(차세대전력계)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전사업 서비스 등을 지원
- 우선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 등 관계부처가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을 책정, 이에따라 대상사업을 인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융자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 신상품 서비스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제도도 정비할 계획

○ 에너지 정책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등 전원의 최적조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금년봄에 제시.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전망을 제시한 것이나 새로운 계획에서는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
- 송·배전사업의 분리와 함께, 동경전력에 대해서는 장래 국유화 가능성은 없으며, 현행 공적관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

○ FTA

- TPP교섭참가에 대해서는 미국 등과의 사전협의를 완료되는대로 교섭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며, 한·중·일, EU와의 FTA논의도 가속화할 방침

◆ 보고서 리뷰

『「포스트 잃어버린 20년」에 빛』

일본경제신문 1월4일

- 본 내용은 일본경제신문 경제컬럼 경제교실란에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오키 마사히코(青木昌彦) 스탠포드대학 명예교수가 기고한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미국, EU, 중국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

-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해외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분업구조의 국제적 재편임. 일본에서는 공동화 우려, 미국, EU, 중국에서도 양극화(bifurcation)의 정치경제적인 현상이 다양하게 발생
-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업율을 낮추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5년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탁월한 기능직과 무역불가능한 서비스산업(간병, 고객센터, 요리)정도에 불과하며 상위 1%가 개인소득 5%를 차지함

□ 국제분업구조 재편이 정치·경제에 큰 영향

- 독일의 경우 저인플레이와 표준화된 중간재 생산의 해외이전을 통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표준적인 노동의 스핀오프(spinn off : 분리)의 대수혜자가 바로 중국임. 중국의 경우 분업구조 재편이 국내 내륙부에서 도시부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내륙지역과 도시지역간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
- 이와같이 자본이동의 글로벌화에 의한 노동분업의 국제적 재편은 모든 경제권에 양극화현상을 초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산업구조 혁신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TPP참가는 국내 산업혁신과 보완적 관계

- 앞으로 표준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인 바, 엔고는 이들 기업이 지적자산이나 생산자원을 해외에서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일본의 경우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시장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이 매우 중요. 지진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절단은 역설적으로 일본산

업의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되었고, 1970년대 석유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산업이 업그레이드(up-grade) 되었듯이,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관련 기술에 혁신, 나아가 에너지, 정보, 제조의 융합·연대라고 하는 시스템개혁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음

-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양극화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산업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TPP를 통하여 국제적분업의 이익증대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그러한 국내적 노력과 보완적이면 보완적이지 결코 모순적인 것은 아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노동재편을 양대 축으로 삼아 양극화를 억제하면서 「포스트 잃어버린 20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중요

* 출처 :

<http://www.nikkei.com/paper/article/g=96959996889DE1E5E4EBE3E3E1E2E1E2E3E0E0E2E3E3997EAE2E2E2;d=0;e=969997EAE2E2E2;b=20120104;c=DM1>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 (1) 『2012년 일본경제/해외경제전망』 미쓰비시동경UFJ은행, 12월31일

*출처:http://www.bk.mufg.jp/report/ecorevi2011/review_0120111229.pdf

- (2) 『사회보장·세제 일체개혁에 결여되어 있는 관점·시각 : 일본판 IRA(세제우대사적연금)정비』 경제산업연구소, 1월5일

*출처:<http://www.rieti.go.jp/jp/events/bbl/11121301.html>

- (3)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룹경영관리』 미즈호종합연구소, 1월5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opinion/business/pdf/business120104.pdf>

- (4) 『수출대국 일본과 독일의 경상수지구조 차이: 법인세율, 경제연대협정, 환율정책의 차이에 의한 대내외직접투자구조 격차』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월6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naga/pdf/n_1201a.pdf

- (5)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사회』 오오사카 가스에너지문화연구소, 1월 6일

*출처:http://www.osakagas.co.jp/company/efforts/cel/search/1195525_1616.html

- (6) 『2012-2050 미래년표』 노무라종합연구소, 1월6일

*출처:<http://www.nri.co.jp/publicity/2010/nenpyou.html>